



강풍에 ‘흔들흔들’… 노후 간판 보행자 안전 위협

최근 의정부서 간판 추락 사고로 행인 숨져
‘바람의 섬’ 제주… 강풍 잦아 더욱 위험 커
불법광고물 제거·철거 매년 수백건씩 이뤄져

강풍이 불면 도심 곳곳에 있는 노후 간판들이 추락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저조해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16일 오전 제주시 일도동과 삼도동, 용담동 등 구도심 일대를 확인한 결과 오랜 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폐점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듯 건물 내부가 텅 비었음에도 훼손된 간판이 그대로 설치된 경우도 많았다.

간판 접촉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사로 고정된 지지대 부분이 녹슬어 색이 바랐거나 간판 표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등 불안정한 간판들도 방치돼 있었다.

이곳을 지나던 시민 A(20대)씨는 “얼마 전 간판 때문에 사망사고가 난 걸 보고 (노후 간판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든다”며 “비슷한 사고가 나기 전에 노후 간판 교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강풍 경보가 내려졌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간판이 추락해 20대 보행자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간판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 크기는 가로 15m,

세로 2m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면적 5㎡ 이상이면 지자체에 신고를, 1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풍이 잦은 제주에서는 이같은 간판 추락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제주에 강풍경보가 발효했던 지난 11일에는 용담동에서 간판이 흔들리는 피해가 발생해 소방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도 간판 흔들림 피해가 있었고, 3월 3일 서귀포시 성산을 고성리에서는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소방이 출동하기도 했다.

제주지역에 발효되는 강풍 특보도 매년 100회 안팎에 달한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지역에는 2023년 79회, 2024년 111회, 2025년 102회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제주도는 옥외광고물협회와 함께 매년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제거 및 철거 건수는 매년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통계에 따르면 도내 불법 간판(벽면 이용·돌출 간판 등) 철거·제거 건수는 2022년 292회, 2023년 201회, 2024년 207회 등으로 매년 200회를 웃돌고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반 상인(시민)들이 간판을 설치할 때 허가 또는 신고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도와 행정시, 옥외광고물협회가 노후 간판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매년 옥외광고물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운동하는 어르신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진 18일 제주시 신산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강희만기자

필로폰 대량 밀반입 중국인
제주지검, 징역 15년형 구형

수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마약류를 제주로 밀반입한 3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 검찰청은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1.1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튿날인 24일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중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지인이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태국에 갔고, 이후 그 지인이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가방을 전달해달라고 해 제주로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음식점 건물서 화재… 70대 여성 사망

소방·경찰, 화재원인 규명 착수

서귀포의 한 건물에서 불이나 70대 여성이 숨졌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

면 전날 밤 11시 1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화재로 건물 2층 주택에 거주하던 70대 여성 A씨가 전신화상

을 입고 숨졌다.

또 건물 1층 음식점이 전소했고, 2층 주택이 부분 소실됐다.

불은 이날 새벽 0시 14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과 경찰은 이날 오전 중 합동조사를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양유리기자

제주자치경찰단, AI 치안 안전 순찰대 출범

야간순찰·취약지 점검 상시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한다. 특히 AI 치안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은 ‘AI 치안 안전 순

찰대’ 첫 활동으로 전날 제주시 에월읍 광령1리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후 도내 중산간 지역 70개 마을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충익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첨단 기술과 현장 소통을 결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방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국회 제출 사망 경위서 허위… 진상조사 부실”

유가족·교원단체, 제주교육청 상대 감사원 감사 청구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과 도내 교원·학부모 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사망 경위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를 공식 문서로 제출했다”며 “이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는 전국 560여 명의 친필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는 또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허위 경위서의 존재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기대했던 심리부검 결과 역시 반영되지 않은 채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상조사반이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조사 결과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규탄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중대재해 위험 높은 사업장 안전 관리 강화

제주도, 국비 12억원 확보·보호 장비 등 지원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제주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해소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지만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고위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 컨설팅과 안전 교육, 안전·보호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보완형 사업’과 ‘제주 특성 산업형 사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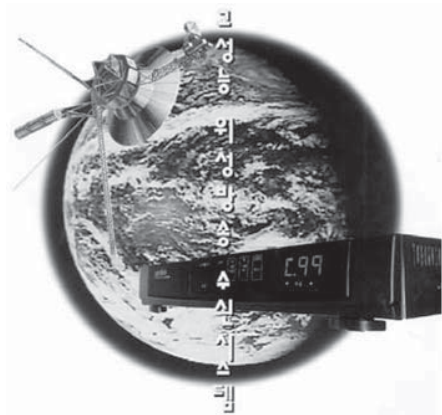
관리 사각지대 보완형은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지원, 고령자와 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재해 예방 집중 지원으로 구성된다.

제주 특성 산업형은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안전관리 지원, 농업 분야 선과장·농산물센터·간벌작업 재해 예방, 숙박·관광시설 재해 예방 집중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중대재해로 인해 21명이 사망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그랜드
보청기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춘들 훈제 전화 주셔서! 기다렸습니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역 서광로 225 2층

제주시서비스마일

감굴 신제품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히라베니

농장 일대만료로 특별 분양

유라조생,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본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근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010-8838-1564

감굴묘목

▲유라조생 2년생 4년생

▲천혜향 2년생 3년생

▲궁천 3년생

·황금향·레드향·한라봉

그외 다수 품종

최대규모·최고경력·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 010-2699-2355